

INFORMATION

제목	월성
감독	남태제, 김성환
장르	핵지구 다큐멘터리
기획/제작	뉴스타파
제공	리틀빅픽처스
개봉	2019년 12월 12일

DIRECTORS

남태제

<전선은 있다>, <학교>, <도시아이들>, <눈을 만나다> 연출
뉴스타파 <목격자들> 연출

“2017년 봄. 광화문 광장에서 처음 황분희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가끔 기자회견장이나 국회 토론회장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서,
할머니와 월성지역 주민의 아픔에 마음이 계속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판도라’처럼 발전소가 폭발하지 않더라도, 일상적인 피폭과 삶의 몰락,
감당할 수 없는 핵폐기물의 문제 등 월성이야말로
우리나라 핵발전의 모순을 응축시킨 공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핵 발전의 민낯을 모두와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것이 영화 ‘월성’을 만들게 된 이유입니다”

김성환

<동강은 흐른다>, <김종태의 꿈>, <우리산이야>, <경환쌤은 아직도 운전 중> 연출
<졸업>, <철규> 프로듀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느 때부터 서울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었고
도시화와 산업화로 부속품이 된 사람들의 잘 살고 싶다는 본능이 뒤섞이며
끊임없이 도시는 발전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물결을 거슬러 마을이 사라지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월성을 처음 찾았을 때 도시의 어딘가처럼 마을이 있었습니다.
오래 전 만든 생활양식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나누며 살고 있는..

도시는 마을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는데 왜 월성과 같은 마을은 사라지는 것일까?
우리가 쓰고 버린 핵폐기물만이 남은 이곳을 사람이 사는 마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핵폐기물 처리 문제에 답이 없는 현실 속에서 무너져가는 월성 주민의 삶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STORY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 핵폐기물 옆에 사람이 살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폐기물처리장, 처리관리시설이 모여있는 원자력 종합세트 '월성'은 전국의 51%, 대한민국에서 절반 이상의 고준위핵폐기물을 떠안고 있다.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으로 인해 갑상선암에 걸린 황분희 할머니와 주민들은 오늘도 정부 당국에게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다. 원전 30년의 방사능 피폭도 억울한데 5천만 국민들의 전기 복지를 위해 핵폐기물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운명에서 황분희 할머니와 원전 주변 갑상선암 환자 618명은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을 상대로 갑상선암이 원전 방사능 때문임을 주장하는 공동소송을 시작한다.

손주들만은 우리 같은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원전 옆에 살아가는 고통은 우리 세대에서 그만 끝내기 위해 마침내 나서야만 한다!

HOT ISSUE

<자백>, <공범자들>, <김복동> 있는
저널리즘 다큐 명가 '뉴스타파'의 세상을 향한 영화

5000만 전국민 전기복지를 위한 월성주민의 희생
대한민국 핵발전의 민낯, 핵지구 다큐멘터리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이슈 '탈핵'
월성원전1호 영구정지 &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증설 논란

MUST-KNOW

1983년 월성원전1호기 설치, 6기까지 가동 중
핵발전소, 방사성폐기물처리장, 핵폐기물 처리관리시설 등 '원자력 종합세트' 보유

'고준위핵폐기물' 가장 강력한 방사선을 내뿜는 핵쓰레기
최소 10만년 지나야 방사능 노출 위험성이 떨어짐

원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장하는 거리 0.914m
주거 경계지역에 한국수력원자력의 사택은 없다

원전 지역 주민 618명 갑상선암
발암의 원인 의심 삼중수소 방사능
월성원전 인접지역 주민들에게서 100% 검출

1979년 미국 스리마일, 1986년 소련 체르노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개수가 많은 국가에서 일어난 원전사고
원전 보유 개수 세계 5위, 땅 면적당 원전 밀집도 세계 1위 대한민국

PRODUCTION NOTE

천년고도 경주의 역사와 동해안의 절경이 있는 아름다운 땅이지만,
30년의 세월 동안 노후 된 핵발전소와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고농도 방사능덩어리 핵폐기물 처분장,
전국 핵폐기물의 절반이 넘는 8천톤의 핵폐기물이 포화상태에 이른 곳.
대한민국 최대의 핵도시 '월성'

월성주민들에게 원전은 두려움 그 자체.
방사능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지만, 원전이 없으면 먹고 살 수 없다
일상적인 피복에 시달리면서도 피폐해지는 지역경제를 두고 볼 수도 없고
원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지역이기주의로 바라보는 외부인들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원전에 생존을 맡겨야 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법은 없을까?

황분희 할머니와 월성원전이주대책위의 노인들, 618명의 원전 주변 갑상선암 환자들은
원전 옆에 살아가는 고통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원전을 찬양하는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도 곳곳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영화 '월성'은
월성원전 이주대책위와 갑상선암 소송인단 두 집단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황분희 할머니와 함께 싸우는 동료 몇 분의 이야기를 통해,
미디어에서 보이지 않는 원전지역의 진짜 현실과 원전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보여준다.

원전에서 생산되는 값 싼 전기의 혜택을 누리는 전 국민이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소수의 월성주민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함께 책임의식을 공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감과 공유, 그리고 함께 하는 고민 속에서
핵발전 문제에 대한 진정한 사회적 해법이 마련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영화 '월성' 만들었다.

2019년 월성 주민들이 맞닥뜨린 두 가지 사건.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증설문제와 원전주변 갑상선암 소송 판결 과정을 통해
모순된 현실을 직시하고 무엇이 정의(正義)인지를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